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우편몰 : www.sanchon.com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0월 2일 수요일(주간) 제389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아·태 장애인게임 관심을

부산은 아시안게임 열기로 한창이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에 이어 10월 26일부터 열리는 아·태 장애인 게임은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장애를 넘어 평등을 향한 힘찬 도전을 보여주겠다는 장애인들의 의지는 국민의 무관심이라는 장벽 앞에서 깨알 위기에 놓였다.

2002 부산 아·태 장애인 게임을 불심(佛心)으로 치르겠다고 적극 나선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 관심이 돋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는 9월 24일 부산시청을 방문, 아·태 장애인 게임의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혜총스님을 비롯한 개금, 금정, 두송, 양정청소년수련원 등의 관장 스님들은 1천만원을 모금, 개·폐회식 입장권을 구매했다. 이 밖에도 사찰과 소속기관에 홍보 현수막 게시, 일반 경기 관람, 개·폐회식 입장권 구매 확대 등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부산불교복지협은 10월 18일 열리는 사회복지프로그램 사례발표회 주제를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정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진정한 이해와 배려로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불자들의 의지 표현이다.

이처럼 불교계의 지원은 10월 26일~11월 1일 열리는 아·태 장애인게임에 참가하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42개국 9천여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이자 4백만 국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향해 내미는 관심의 손길이어서 더욱 값지다.

장애인들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이 촉발제가 되어 현재 아시안 게임 서포터즈로 활약 중인 불교계 신행단체와 사찰들의 활동이 이후 열리는 아·태 장애인 게임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천미희(부산 주재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불교 콘텐츠사업 '본격 시동'

이미지 등 '원형자산' 디지털세계 새 가치 창출

콘텐츠 공모 단청문양 등 3건 선정

"창작영역 확대땐 세계적인 경쟁력"

탱화 속에 등장하는 신장들이 게임의 주요 캐릭터로 개발되고 단청장의 손끝에서 이루어진 문양이 디지털 기술로 재가공 되어 산업현장에서 활용된다.

불교계가 안고 있는 수많은 이미지 등 원형 자산이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개발 보급이 디지털 사회의 판도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의 원형들에 대한 관심도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6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이 발표한 제2차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공모에서 '만봉스님 단청문양의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적 활용방안연구' 등 3건의 불교관련 콘텐츠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의해 폭파된 바미얀 대불이 3D 기법으로 디지털 복원되기도 했고, 청소년 포교를 겨냥한 불교 애니메이션 작품들도 제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화 사회의 핵인 콘텐츠 분야에서 불교에 눈길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진단한다. 우리민족의 역사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방대한 전적과 인물 등 이 분야에서 활용할 소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 때문에 연구기관과 벤처기업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불교의 원형에 관심도를 높여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작 불교계에서는 아직 불교원형의 콘텐츠화에 대해 전격적으로 발을 담그지 못하고 있다. 캐릭터 개발과 영상자료 확보 등 초기단계의 투자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대형 프로젝트를 운영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각 종단의 캐릭터 개발 성과와 일부 스님들의 개별적인 노력, 불자 기업인들의 꾸준한 관심이 불교계의 콘텐츠 산업 활성의 희망을 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서병문 원장은 "불교관련 소재는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차별성을 담보해 독창적인 창작영역을 확장한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만큼 불교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특집 6·7면

임연태 기자 yilim@buddhapia.com

아린제 추기경 조계사 방문 로마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인 아린제 추기경(사진 가운데)이 9월 23일 조계사를 방문, 주지 지홍스님의 안내로 경내를 둘러보았다. 아린제 추기경은 이어 한국의 집에서 종교지도자협소속 종단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종교 화합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사진제공=평화신문

중국불교협 새회장 일성스님

부회장 20명 선임, 종단협 축하전문 보내

중국불교협회 새 회장에 일성(一誠)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중국불교협회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북경의 한 호텔에서 제7차 전국대표회의를 열어 제7기 이사회를 구성하고 명예회장에 거리예랑지예(티베트), 회장에 일성, 상무부회장에 성휘(聖輝), 이사회비서장에 학성(學誠) 스님을 선출했다. 이 회의는 또 부회장에 정혜(淨慧), 명학(明學), 근통(根通), 계인(戒忍), 각성(覺醒) 스님과 도슬인(刀述仁) 거사 등 20명을 선임했다.

2000년 5월 전임 조박초(趙朴初) 거사의 입적이후 2년 만에 중국불교협회 새 회장에 선출된 일성스님은 위앙종 제 10대 종정(傳人)으로서, 강서성 진여선사 및 보봉사의 방장을 겸임하고 있다. 1927년 호남성 망성현 출생으로, 49년 출가 후 강서성불교협회 회장과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강서성 정치협상회의 위원을 역임했다. ☞관련기사 11면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9월 26일 회장 정대스님 명의로 일성스님의 회장취임을 축하하는 전문을 중국불교협회에 보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남북불교계 북경서 회동

7~10일 … 관심사 논의

종단협의회와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평화통일불교협회 등이 10월 7일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과 만나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다.

평불협(7일)과 진각종(8일) 종단협(9일) 조계종(10일) 대표단 등은 7일~10일 조불련측과 개별 접촉을 갖는다.

종단협과 태고종은 이번 접촉에서 단청불사 및 단청 기술자 방북 지원 문제, 조계종은 신계사 복원, 평불협은 금강국수공장 지원 문제 등에 대해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진각종은 종단대표단 3차 방북문제를 비롯해 평양 컴퓨터보급소 개설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창간 8주년 특집 I 포함
금주 32면 A판 16면 B판 16면 발행

구독료 이달부터 월 5천원

기존독자 종전대로 월 4천원 적용

10월부터 4개면 증면 28면 발행

10월부터 구독료가 신규 독자에 한해 月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오릅니다.

구독료 조정은 창간이래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창간이후 구독료 변동상황

일 시	발행면수		구독료(원)
1994.10.15	16	→	4,000
1997.1.1	20	→	4,000
1997.10.1	24	→	4,000
2002.10.1	28	→	5,000

그동안 불교계 다른 신문은 약 33%가량 구독료를 인상해 왔습니다.

본지는 그동안 더 많은 면수에도 불구하고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구독료를 인상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신문 1부당 순수 제작원가가 창간일인 1994년 10월15일에 비해 2002년 9월 현재로 제작비·발송비·인건비 등을 포함해 67%나 상승했습니다.

현대불교는 구독료 인상을 계기로 독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24면 발행체제를 10월부터 A판 12면 B판 16면 등 총 28면 발행체제로 변경합니다. 더욱 풍부해진 정보, 생활 속의 불법 수행을 위한 충실한 가이드 역할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9월말 현재 구독자인 경우는 종전 구독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10월부터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만 새 구독료를 적용합니다. 한편, 1년 단위 구독신청에 적용해오던 할인제도는 폐지합니다. 영구 구독신청의 경우는 현행 50만원에서 62만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신문제작에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행수기 보내주세요 제8회 공모

불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8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교인연 이야기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수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 마감: 2002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2003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buddmaster@buddhapia.com

12월 17일까지 편집국 담당자 앞

시상내역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 천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상금,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시멘트 법당 한국불교건축공예는 기초부터 다릅니다!

지금 전국에선, 한국불교건축공예로 사찰 건축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2002년에 완공될 사찰

홍내는 낼수 있어도
"금"과 "은"의 가치는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사업안내
- 건축사업부
  건축, 설계,시공,법당,요사채,납골당 등
- 의식구사업부
  번, 연
- 해외사업부
  중국, 미얀마,베트남 진출

한국불교건축공예
서울 중랑구 망우2동 563-12
대표전화 02)494-4890-1